

별처럼 남은 이름

윤영자 가나아트센터 석주미술상

가나아트센터, 석주 윤영자 서거 10주기 기념전

2026 / 09 / 04

선산



윤영자 / 1922년 서울 출생. 홍익대 조각과 졸업. 국전 문공부장관상 수상. 대전, 서울, 부산, 뉴욕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개최. <석주 윤영자 회고전>(가나아트센터 2001) 개최. 목원대 교수, 한국여류조각회 회장,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회장, 홍익조각회 회장, 목우회 이사장 역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 수훈.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한국 현대조각의 거목 석주 윤영자(1922~2016)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별처럼 남은 이름, 석주 윤영자 서거 10주기 기념전 - 그리고 석주 미술상 수상 작가전>(7. 16~8. 16 가나아트센터). 윤영자 회고전에는 조각작품 20여 점과 함께 석고 원형, 일기, 영상 등 미공개 자료를 공개해 고인의 삶과 예술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석주미술상은 1989년 석주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제정된 국내 최초의 여성미술상이다. 이번 전시에는 역대 수상자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조각가이자 교육자로 또 후원자로 92년 생애를 걸었던 윤영자의 예술세계를 확인하고, 그 정신이 후대 작가들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확장되었는지 조망하는 자리이다.



윤영자 <사랑> 화강석 50×50×186cm 1992 가나아트센터 제공



<별처럼 남은 이름, 석주 윤영자 서거 10주기 기념전> 전경 가나아트센터 제공, 사진: 윤재원

석주미술상 35년, 수상작가전도 개최

윤영자는 대학 퇴직이라는 삶의 전환기를 맞았던 1989년, 사재를 털어 석주미술상을 제정했다. 그는 남성 중심의 미술사를 헤쳐 나온 인물이다. 김홍희가 지적했듯이, “여성 작가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적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라,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여성 간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뿌리내리기를 바랐을 것이다. 석주미술상은 이러한 신념과 실천이 맺은 소중한 결실이었다.” 역대 수상작가는 다음과 같다. 1회 정경연(섬유공예), 2회 박상숙(조각), 3회 정보원(조각), 4회 석난희(서양화), 5회 이숙자(한국화), 6회 김승희(금속공예), 7회 홍정희(서양화), 8회 원문자(한국화), 9회 김혜원(조각), 10회 조문자(서양화), 11회 윤난지(평론), 12회 차우희(서양화), 13회 이불(조각 설치), 14회 김홍희(평론), 15회 송수련(한국화), 16회 유리지(금속공예) 장진(도예), 17회 권이나(서양화), 18회 심영철(조각 설치), 19회 홍순주(한국화), 20회 이자경(서양화), 21회 김정희(조각), 22회 송인현(서양화), 23회 이소진(건축), 24회 이경미(조각 회화), 25회 안재홍(조각) 등이다.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위계를 깨고, 창작과 비평을 아우른다. 장르를 망라할 뿐만 아니라 학연 또한 열려 있다. 무엇보다 국내 유일의 여성 미술상 권위에 걸맞은 수상 작가의 면면이다. 그 자체가 한국 여성 미술의 역사(역사) 해도 좋을 것이다. 35년을 면면히 이어온 석주미술상의 값진 열매가 아닐 수 없다.

석주문화재단은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과 유망 작가 육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석주미술 특별상과 선정작가전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상은 국내외 예술계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인물에게 수여한다. 이경성 김홍수 박서보 서도호 이종덕 김영석 이호재 등이 수상했다. 선정작가전은 40세 미만의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운영자의 예술정신은 오늘도 살아있다.



석주미술상 역대 수상작가.

아래 왼쪽부터 정보원 김홍희 조문자 김혜원 차우희 원문자 김승희 송수련 정경연,
윗줄 왼쪽부터 석난희(딸 양영희) 윤난지 송인현 박상숙 윤혜정 (석주문화재단 이사, 운영자의 딸) 홍순주 김정희 이경미 안재홍. 사진: 윤재원